

# 乳製品 輸入自由化란 常識밖의 일

金 南 龍

輸入自由化論이 그 어느때 보다도 크게 논의되었다. 年初부터 報導되었으며 그것도 주기적이었으므로 輸入自由化에 오르내리던 品目에 關係되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자극을 받았으며 또한 전전긍긍하였다.

輸入自由化를 論하는 學者나 當局도 國家에 有益한 方向으로 의견도 진술하고 또 政策도 決定할 것이 아니냐는 자위도 해보지만 分野가 워낙 넓으므로 그 분야의 실정을 속속들이 全部 알 수는 없을 것이며 그러다보면 國家에 利益되게 한다는 것이 헛가 되는 주장과 政策을 決定하게 될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해당 品目は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것이 畜産物일 때는 그 타격이 그 産業의 존폐로 까지 물고 갈 수 있기 때문에 畜産分野에 종사하는 그 누구 할 것 없이 신경을 곤두 세웠던 것이다.

農業經濟學會가 주최한 農産物 輸入自由化와 農業政策이란 심포지움에 討論에 나왔던 어느 新聞社論說委員께서는 今番 輸入自由化 問題가 대두되었을 때 他部處산하 團體에서는 輸入自由化의 問題點등을 건의하는등 그 반응을 보였으나 農水産部 산하 단체에서는 꿀먹은 벙어리 모양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힐난하는 것을 들었다. 이번에 거론된 農水産物의 輸入自由化는 곧 畜産物의 輸入自由化를 의미한다고 할 정도로 그 品目の 윤곽이 서 있었는데도 農水産部 畜産當局과 산하 協會와 극히 一部の 組合만이 輸入自由化저지를 爲하여 關係當局에 이해시키는 동시 여론을 조성하였지 그외는 물건너 불

구경하는 격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勿論 畜産物의 輸入自由化”란 常識밖의 일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보니 關心밖의 일이었으므로 關心을 나타내지 않았는지 몰이지만 주위에서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무관심이였다. 이에 反하여 몇 學者들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乳製品이 종전과 같이 制限品目으로 決定하는데 크게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畜産物의 輸入自由化論이 대두 되었을때 畜産人은 勿論 이 分野와 關係되는 人士들도 설마 畜産物의 輸入自由化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고 常識밖의 일로 돌리고 별다른 關心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關係當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등 畜産物의 輸入自由化를 굳히는 作業을 계속하고 있고 또 數次 協會에 參席하였던 農水産部 실무진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畜産人들은 “아차 큰일이다. 常識밖의 일이라고 生覺하고 아무런 對備를 하지 않고 있다가는 상식밖의 일이 만의 하나 실현될 경우 그 충격은 우리나라의 畜産의 존폐문제까지 야기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하에 어떻게 해서던지 輸入自由化만은 막아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活動에 나섰던 것이다.

本 協會에서는 酪農人大會를 열어 酪農人들의 소리를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酪農肥育産業의 育성과 畜産振興을 爲한 세미나”로 대체 개최하여 500餘 酪農家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農水産部를 위시하여 國會議員등 관계인사를 모시고 연사의 입을 빌어 우리 酪農家들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아 乳製品을 위시하여 畜産物의 輸入自由化는 유보되어야함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흐뭇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우리들의 호소를 귀담아 들어주고 또 호응하여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點이다.

지난 해에도 輸出入期別公告作業時에 粉乳는 輸入自由化하여야 한다고 關係當局에서는 고집하였으며 農水産部에서는 輸入自由化는 곧 酪農産業의 도산을 뜻하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다고 맞섰던 것이다. 乳製品의 輸入自由化論의 論爭은 年例行事처럼 대두되고 있으며 그 논쟁범위도 부처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今年는 넘겼으나 來年에 또 대두될 것이며 乳製品의 輸入自由化政策이 바뀌어 現在와 같이 계속 制限品目으로 놔두겠다고 하면 安心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安心할 수 없는 것이다.

혹자는 발하기를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몰고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를 論하듯 乳製品의 輸入自由化論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들의 의사대로 輸入自由化하도록 놓아두자. 그러면 얼마안가서 그들 자신들의 주장의 모순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들자신들이 輸入自由化를 反對하고 나설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 방관하자고도 하나 이는 하도 답답하여 그 답답한 심정을 털어 놓는 말에 불과하지만 酪農産業의 基盤이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구한 時日에 걸쳐 다져지는 것이므로 이 點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우리나라는 全國土의 66%가 林野로 되어 있으며 農耕地는 不過 2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66%의 林野를 어떻게 活用할 것이냐가 問題인데 林野가 66%인데 比하여 木材自給度는 5%内外라니 林野로 현재와 같이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林野를 有效적절하게 活用하는 데는 “소”가 入殖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는 쇠고기와 牛乳를 國民에게 供給하는 以外에 國土利用面에서도 重要な 位置에 있다 하겠다. 現在 우리나라의 酪農業은 길게 봐야 20年, 肥育産業

은 이제 막 胎動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다. 이것을 국제비교하여 劣位品目이니 또는 國際競爭力이 없느니 하는 판단은 시기상조이며 外國은 100~300年의 酪農 및 肥育産業史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外國의 牛乳價格은 表面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이면에 各種 장려금, 보조금등의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 酪農民들은 生産費 그대로의 牛乳값을 받을 수 있고 市民들은 장려금, 또는 보조금만큼 싸게 牛乳를 먹을 수 있으며 먹다남은 牛乳는 분말(粉乳, 유당, 유장분말등)로 만들어 輸出의 機會가 있으면 남는 것, 國內에 두면 계속 남아도라가니 언젠가는 폐기할 것, 버리느니 싼값에 輸出하여 農民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싼값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牛乳값인양 國內牛乳價格과 比較, 國內牛乳價格이 國際價格의 몇배에 이른다고 消費者를 爲하여 輸入을 自由化하겠다고 하니 이 內容을 아는 人士들이 불쾌는 답답하기만 한 것이다.

輸入自由化를 爲한 例示制(언제부터 輸入을 自由化하겠다는 例告)를 檢討하고 있다고 한다. 86, 88年度를 最終基點으로 하여 作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 酪農關係品目은 86, 88年度 時限으로는 어렵다. 酪農業을 하자면 여러가지 與件이 다 따라 주어야 한다. 酪農家들 自身の 힘만으로 제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結果는 미약하기만 하다.

젖소를 改良하고자하여도 自己가 뜻한 젖소를 購入할 수 없으며, 酪農關係機械도 大部分이 輸入品이므로 高價며 또 그 部品 역시 高價면서도 쉽게 구하기가 어려우며 資金等 그 與件이 外國과는 比較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20年이란 짧은 歷史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酪農業은 눈부시게 發展하여 국제우위를 論하기에 까지 이른 것이다. 酪農民들의 열의를 보라. 希望에 부풀어 있지 않은가. 牧場을 방문하여 보라, 방문할 때 마다 무엇인가 달라짐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이 發展이며 또 可能性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어떤 基準을 설정코 그 基準에 도달여부를 따진다면 기준미달 牧場도 많이 있으리라고 본다. 더욱 그 基準을 우리나라의 실정을 무시하고 外國에 다니면서 본 그 常識으로, 또는 영화에서 본 理想郷에 基準을 두었다면 더욱 그 基準에 미달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의 基準이 아니므로 再考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酪農業은 눈에 띄이도록 발전되고 있다.

農民들은 過去와는 다르다. 주위의 農事に 尙 關心을 가지고 있다. 그 주위의 農業이 自己가 營爲하는 農業보다 所得이 높다면 누가 하라고 권장하여서가 아니라 所得높은 것을 擇하도록 되었다. 所得이 없는 것을 강요하여보라 그것이 産業化가 될 것인가. 단지 과열되어 生産이 과잉 시세폭락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을 조절하여 줄 조절기능이 없는 것이 問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機能도 各種 協會가

앞으로는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希望的이다. 우리 酪農産業도 불이 붙었다. 이 불을 끄려들지 말고 進실한 方向으로 유도하여 주는 길만이 남아 있다. 이것이 當局에서 할 일이며 各種 指導機關과 協會에서 할 일이다. 每年 酪農家들의 심정을 뒤흔들어 될대로 되라는 酪農業이 아니고 안정된 상태에서 生産業에 전념 할수 있도록 每年 되풀이 되는 乳製品輸入自由化論은 한 동안 묻어 두어야 할 것이며 酪農家들은 技術向上과 經營을 合理化하여 生産費를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하루속히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確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酪農業은 有望産業이다. 그러나 아직은 유치산업이다. 그러므로 어느 기간까지는 保護育成되어야 하며, 外國에서 導入되는 乳製品은 제값이 아닌 덤핑가격이다. 이 덤핑價格과 國內 乳製品價를 比較한다는 것은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다. (筆者 本協會 專務理事)

(이하 39페이지에서 계속)

## 4. 맺는말

사회적인 요구는 깨끗한 우유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낙농인은 위생적인 우유를 공급하여 소득도 높이고 가장 좋은 식품의 공급자로서 국민앞에 정정 당당히 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원유중의 세균수에 따라 원유를 등급화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목장에 보다 많은 이익이 되도록 이를 가격조정에 반영하여, 목장위생관리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등 관계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불원잔 세균수에 따른 원유의 등급화로 가격 조정에 반영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축산식품을 주식으로 하지않는 국민이 세계를 지배한 역사는 없다」란 격언을 생각하며 우유를 생산 공급하는 낙농인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하 18페이지에서 계속)

이와 같이 육안적인 관찰로 가능하지만 더욱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취한 소량의 점액을 두장의 슬라이드 글라스 사이에 넣어 2~3회 비빈 다음 그 성상을 현미경하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때 10%의 초산은액(硝酸銀液)으로 고정한 후 김자 염색을 하면 더욱 정확히 관찰할 수 있다. 임신기에는 축모상(縮毛狀), 발정기에는 결정형(고사리잎과 비슷한 모양) 및 황체기에는 끈모양으로 나타난다. 이 방법은 임신 30일 이후에 적용하면, 적중율이 95% 이상이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방사면역법, 초음파(超音波) 진단법 및 생물학적, 화학적 진단법이 있다. (다음호에)